



## 도처에 드리운 공포와 불안의 그림자 문명이 야기한 일상적 폭력성 담아내

— 첫시집 「우울氏의 一日」 펴낸 함민복씨

이 책 그 사람

오랜 습작기, 데뷔 후에도 풀지 못하는 긴장감, 그리고 첫시집. 창작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는 시인의 심정은 복잡미묘하기 그지없다.

“우선 기쁘고 여러가지 미진함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단 문학이라는 그 기나긴 행보의 첫시기가 정리된 느낌”이라고 말하는 함민복씨(29)도 예외는 아니다.

그의 첫시집 「우울氏의 一日」(세계사)은 앞으로의 그의 시쓰기를 예감케하는, “까칠한 지식 나부랭이 다 버리고 / 내 머리 속에 흙 한 삽”을 펴담는 ‘흙 속으로 떠나는 전지훈련’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 한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들은 끊임없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제목 그대로 우울증의 조짐을 드러내고 있다.

“저의 병명은 ‘서울멀미’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백마를 빠져나와 서울로 들어서면 그 많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폭력성’ 때문에 육체적 고통까지 느끼게 됩니다.”

청량리역 광장앞의 인구시계탑, 곳곳에 엮여 있는 거지들, 만원 지하철 속의 노인들과 갓난아이들 등 그에게 포착되는 서울정경은 곧 죽음과 연결되는 어두운 이미지이다. 서울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그 이미지들이 주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는 늘 ‘이미지싸움’에 시달려야만 한다.

실제로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러나 그 치료의 부절없음 또한 그는 알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병원을 나서면서 또다시 ‘문명의 길로틴’인 지하철을 타야만 하고

‘우울한 하루’는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맨처음 체험한 죽음은 가난에 의한 죽음이다.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부터 좌절되기 시작해 그 보상심리로 책임기에 더 몰두했지만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가난은 역시 죽음으로 대표되는 어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체험은 그에게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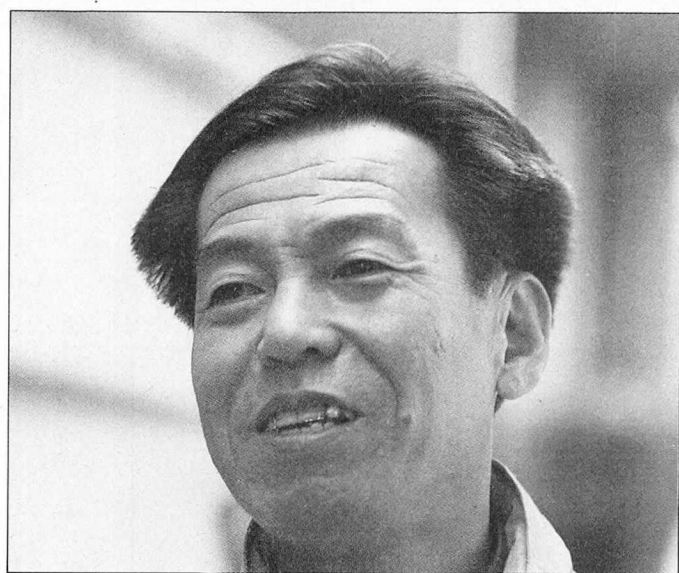
“죽음에 대한 공포에 비례해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커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외경과 그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이 앞으로 제 시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가난·죽음·생명을 날것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에게 체득돼 있는 시골정서와 문명이 충돌하며 일으키는 일상적인 폭력성 속에 드러내는 것이 그의 시적 방법론이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한편의 이야기 구조를 통해 나지막하게 배어나기 때문에 독자들은 시인의 체험에 강요당하거나 지나친 부담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장시보다 더 긴 이른바 ‘소설시’를 써보고 싶다는 그는 한편으로 “평생 깨끗한 동시 10편만 쓰고 싶다”고 한다. 이 말은 곧 “집이 있는 사람이 전체의 반만 넘었으면, 희망이 절망의 반만 넘었으면 좋겠다”는 그의 ‘무조건 반만’이라는 소망의 문학적 陽壽로 기자에게 들린다.

요즘은 그는 안정을 찾는 방법으로, 선배시인이 조언해준 불경읽기에 열중하고 있다.

— 정소연 기자



## 일반인을 위한 알기쉬운 식물도감 들꽃의 생태와 유래 재미있게 엮어

— 「우리꽃 백가지」 펴낸 김태정씨

이 책 그 사람

재야식물학자 김태정 (48·한국야생화 연구소장) 씨는 최근 펴낸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현암사)로 일간지·방송·통신 출판담당기자단이 선정한 올해의 책 5종 중 하나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공들여 만든 한편의 책이 그 공들인 만큼의 가치를 남들에게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크게 기쁜 일임에 분명하다.

한때는 기타줄을 조으며 오선지 위에다 유행가며 CM송을 작곡하여 이름을 날리던 그가, 20여년 전 어느날 카메라 하나만 달랑 메고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산으로 들어가 색깔있는 풀꽃들을 향해 연신 셔터를 눌러대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야생화도감」(교학사) 「아스팔트 위에서 피는 야생화」(부루칸모로) 「약이 되는 야생초」(대원사) 등 모두 7권의 책을 펴냈고 그때마다 상당한 평가를 받아왔었다.

“대중가요와 들꽃, 언뜻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노래듣는 것과 꽃을 보는 것, 뭔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통된 정서가 느껴지지 않아요?”

어릴적 그의 집에는 큰 농장을 경영했던 아버지 때문에 온갖 나무와 풀이 많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죽어가던 나무와 화초도 일단 자신의 손이 가면 신기할 정도로 되살아날 만큼 식물과의 인연과 애정이 각별했다 한다. 노래도 좋지만 연에게 생활의 각박함이 그를 더이상 못 견디게 만들었을 때 자연 속으로 숨어들어가고픈 충동은 어쩔 당연한 일.

봄이면 제비꽃 금낭화 습다리 썬바귀,

여름이면 패랭이꽃 자귀 달맞이꽃, 가을의 과꽃, 겨울의 수선화... 꼭꼭 숨어 핀 꽃 한송이를 만나려고 갖은 낭패를 겪으면서도 산야를 휘젓고 다니다 그만 들꽃 연구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공부를 하다보니 일본사람 나가이박사가 해놓은 것 말고는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식물도감 하나 없더군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해방뒤에 나온 몇 안되는 식물도감들도 죄다 그 사람 것을 베껴놓은 데 지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그때 느낀 비애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지요. 우리 자연을 우리의 노력으로 정확히 기록해 놓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열심히 쓰다녔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네 들녘에서 피고 지는 수천여 종의 야생화 중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기본적인’ 꽃 백가지를 골라 생태와 용도, 분포지도, 그리고 꽃에 얽혀 전해지는 이야기까지 소상히 짚어 있다.

나무 밑동에 보일듯 말듯 피어있는 꽃을 가리키며 저게 무슨 꽃이냐고 묻는 아이들의 질문에 당황한 기억이 있는 부모들에게, 또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저 심심할 때 읽기 좋도록 식물도감의 딱딱한 설명을 없애고 이야기해듯 써내려간 점을 김태정씨는 이 책의 장점이라 꼽는다.

“향기가 매우 짙고, 무어라 딱 꼬집어 하나로 이름붙일 수 없는 오묘한 색깔을 가졌다”고 우리네 들꽃의 특징을 설명하는 그는, 그간 모아놓은 40만장의 슬라이드를 정리해 내년쯤 근사한 식물도감 하나를 펴낼려고 출판사를 물색중이다.

— 정혜옥 기자



## 세일즈와 공업과의 관계 접목 시도 현장경험의 풍부한 사례 든 실무서

—「세일즈 엔지니어링」 펴낸 김상욱 씨

**이 책 그 사람** 어떤 형태로든 사람은 직업을 갖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호구지책'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게 마련인데, 김상욱씨(현대강관 수출부, 38)는 11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직업철학을 일궈낸 남다른 직장인에 속한다.

최근 그가 펴낸 「세일즈 엔지니어링」(중원문화)이 그 성과물로, 소극적인 직업관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될 이 책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투철한 장인정신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시절에 구상하게 된 이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생소한 분야인 '세일즈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서술한 부분과, '세일즈 엔지니어'와 구매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판매전문가의 모집·선발·교육·조직방법에 대한 제언을 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용이 생명인 영업에 있어 “인간성을 잃지 말자”는 자신의 지론에 중점을 두고 집필했다는 김상욱씨는, 육감과 경험으로 일을 하던 시대는 지났으면서 ‘전문가적 판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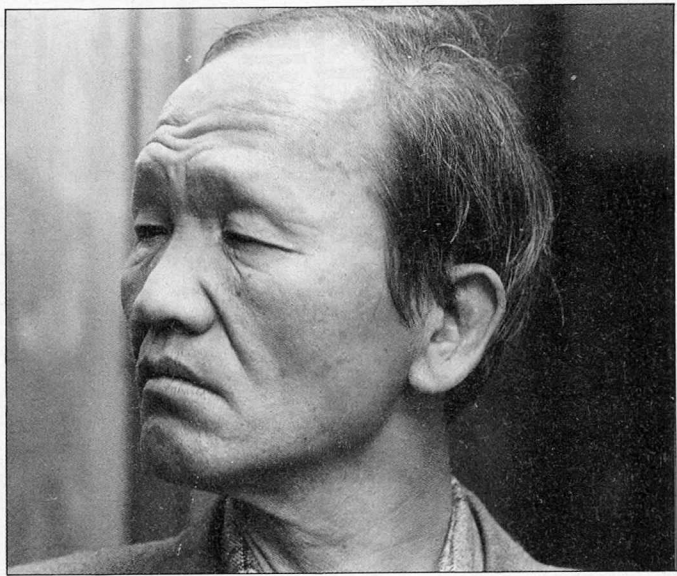
세일즈 엔지니어를 위한 실무서로 상황에 따른 현장경험의 사례를 들고 있는 이 책에는 체계적인 과학화에 의해서만 합리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그의 논리가 집약돼 있는데, “자신의 행적을 면밀히 검토·관찰해서 논리화시켜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주된 논조. 석달에 한결레씩 구두를 갈아신으며 오퍼상과 종합상사 등 거래처를 쫓아다니고, 퇴근후의 술자리에는 결석하는 법이 없는 그 역시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넉넉지는 않다. 그렇지만 “기록보다 더 좋은 기억은 없다”는 생활방식과 함께 항상 께차고 다니는 가방속에 하루에 한가지씩은 자료를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6년간의 장정 끝에 결실을 보게 한 것.

시간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김상욱씨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남겨놓은 것이 없다”는 반성이 여름휴가와 휴일의 ‘골방살이’를 가능케했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경우 직장인들의 출판은 상식화된 일이라고 전한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후배들에게는 실질적인 교육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이번 출간을 자평하는 그는 동료와 상사들로부터의 칭찬에 쑥스러워 하면서도 준비중인 번역서와 이론서 출간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전수’가 이뤄지지 않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요즘의 기업인사관리에서도 답습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김상욱씨의 직업철학은 “자신이 먼저 알게 된 지식을 주위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자신은 또다른 ‘지적 도전’을 추구할 때 우리사회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다.

— 최태원 기자



## 耳順 시인의 삶과 문학의 자전적 기록 기행 속에 숨은 자유와 진실의 의지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펴낸 천상병 시인

**이 책 그 사람** 1952년 문단에 데뷔한 이래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고, 행려병자로 정신병원에 입원,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죽기도 전에 유고시집을 내는 등 파란 많은 행적으로 술한 화제를 뿌렸던 시인 천상병씨(61)의 산문집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강천)가 출간됐다.

84년도 출간에 정이었다가 출판사의 사정으로 펴내지 못했던 두권의 산문집에서 추린 글과, 최근에 쓴 글, 그리고 60년대 이후에 썼던 것 중 미발표의 원고들을 한데 모은 이 책에는 그의 詩作 메모와 문학론, 일상의 이야기를 담은 수필, 평론 등이 수록되어 있고 아울러 다른 사람이 쓴 천상병론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흥미를 끈다. 책의 중간중간에 곁들여져 있는 증광스님의 그림도 신선감을 더해주고 있다.

시작에서 끝까지 두어마디면 죽한 길지 않은 말, 단정적인 종결어미, 그리고 끝맺음을 두세번이나 반복하는 천상병 특유의 어투와 닮아 있는 제목에서 보여지듯, 이 책에는 결코 순탄치 않은 인생 역정에서 시인이 체득한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그간 그의 기행에 대한 세간의 요란스럽고 천박한 호기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거나 홀대받아온 시인의 삶과 문학의 진면모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내가 사는 곳은 의정부 삼암동 384번지. 나는 직업이 없어 매일같이 하도 심심하니 많이 찾아 오시오.”

이 책은 그가 자신이 거거하는 내실의 문을 지위고하를 막론한 방문객을 향해

거리낌없이 열어젖히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활자를 따라 그의 생활과 문학의 가운데로 들어간 독자들은 그 속에서 ‘백치같은 무구함’ 뒤에 숨어 있는 금그을 수 없는 자유의지와, 하냥 아름다운 서정의 시구를 떠받치고 있는 당당한 논리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청춘의 발산을 가로막는 한국적 현실하에서 ‘짠 술’을 마시며 보내야 했던 그의 청년기에 있어 詩란, 청춘을 억압하는 유·무형의 굴레에 대한 항변에 다름아니었다.

“시는 곧 삶의 진실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시의 소재는 늘 내 일상에서 나오지요. 나는 기인이 아니라 시인일 따름입니다.”

자신을 기인이라고 부르는 세간의 호칭이 마땅치 않다는 천상병 시인은 이제 무게 실리지 않은 바람처럼 떠돌던 저자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병상에서 돌아와 그의 부인이 경영하는 찻집 ‘歸天’을 지키고 있다.

“눈이 나빠져서 책도, 신문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 절대자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삶의 기쁨을 시로 쓰면서 살 겁니다. 천상으로 가서 먼저 간 분들을 만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아내가 주는 하루 2천원의 용돈만으로도 넉넉한 행복을 느끼는 耳順의 시인은 歸天의 낡은 소파에 의지한 채 손톱자르는 일에 몰두해 있었다. 손톱은 얼마이지 않아 또 자라날 것이었다.

— 박남정 기자